



김구원 | 개신대

1. 들어가는 말

사무엘상 2장 27-36절은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후대에 삽입된 이념적 본문으로 간주하지만,¹⁾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심판 본문이 주변의 보다 넓은 문맥과 잘 조화된다는 것이다. 즉 그 본문은 엘리 아들들의 악행을 묘사하는

1) 마르크 브레틀러는 삼상 1-2장이 네 단계의 편집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레틀러에 따르면 엘리에 대한 심판 본문(2:27-36)은 'Addition C'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직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포로기의 편집자가 첨가한 것이다. Marc Brettler, "The Composition of 1 Samuel 1-2,"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 (1997): 601-12, McCarter discerns the hand of the Josianic historian in the oracle of doom because it expresses "the Deuteronomistic polemic against the non-Jerusalemite priesthood—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Cf. P. Kyle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16.

사무엘상 2장에 대한 적합한 결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의 핵심 요소들을 예언적으로 품고 있다.²⁾ 사무엘상 2장 27-36절은 내적인 논리 구조의 측면에서도 완결도가 매우 높다. 이 본문은 베스터만(Westermann)이 이름 붙인 ‘심판 예언’의 전형적 구조를 따라 크게 ‘혐의 제기’(accusation)와 ‘심판 선언’(judgment)으로 나뉜다.³⁾ 29절의 혐의 제기 본문은 엘리 가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27-28절에 의해 준비되며, 심판 선언 본문인 31-33절 이후에는 그것의 참을 확증해 줄 표적으로서의 사건(엘리 두 아들의 죽음, 34절)과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완성시킬 사건(대체적인 제사장의 임명, 35-36절)이 차례로 예언된다. ‘혐의 제기’ 부분과 ‘심판 선언’ 부분을 연결시키는 30절을 축으로 이 본문은 A-B-C-B’-A’의 교차덧구구조(chiastic structure)를 이룬다.

A 엘리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27-28절)

B 엘리 가문에 대한 혐의 제기(29절)

C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리라”(30절)

B’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고(31-33절)

A’ 엘리 가문에 베푸신 하나님의 심판(32-36절)

2) 이 심판 본문이 사무엘상에서 감당하는 서사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에서 다루어진다. Bruce C. Birch,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Samuel: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2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2002), 988; Antony F. Campbell, *1 Samu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 7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2003), 56; J. P. Fokkelman, *Vow and Desire (1 Sam. 1-12)*, vol. 4 of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3), 135; Ralph W. Klein, *1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X: Word Books, 1983), 27; Jürg Hutzli, *Die Erzählung von Hanna und Samuel: Textkritische und Literarische Analyse von 1. Samuel 1-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Kontextes*, 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vol. 8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7), 168.

3) Campbell, *1 Samuel*, 56.

a. 엘리 두아들들의 죽음(34절)

b.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 임명(35-36절)

이와 같은 사무엘상 2장 27-36절의 구조적 짜임새와 그것이 넓은 문맥 가운데서 감당하는 문학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에 사본학적 문제와 해석적 난제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⁴⁾ 맛소라 본문을 칠십인역과 비교하면, 해결이 쉽지 않는 이문들(textual variants)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 논문은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난제인,⁵⁾ 29절과 32절에 등장하는 מָוֹן(마온)의 용법, 특히 32절의 מָוֹן צָר(짜르 마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맛소라 본문을 훼손 본문(corrupt text)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칠십인역과 사해문서(4QSama)의 독해에 근거해 본문 자체를 수정(emendation)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맛소라 본문이 훼손 본문이 아님을 주장할 뿐 아니라, 맛소라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본문을 사무엘서의 보다 넓은 문맥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한다.

2. 질투의 눈으로 보기

대부분의 학자들은 מָוֹן(마온)을 포함한 사무엘상 2장 29절과 32절의 구문들이 훼손 본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이해 불가하다고 주장

4)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 W. Norton, 1999), 14, footnote 29.

5) 이 구절의 해석적 어려움에 대해 노웁(W. Nowack Richter, *Ruth u.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2], 16)은 "tatsächlich spottet מָוֹן צָר jeder Erklärung"라고 말한다. 비슷한 논지의 다음의 논문도 참고하라.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14, footnote 32; Tony W. Cartledge,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Pub., 2001), 61; Paul Dhorme, *Les Livres de Samuel*, Etudes Bibliques. (Paris: Victor Lecoffre, 1910), 40;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87-88.

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 본문에 다양한 수정을 가한다.⁶⁾ 예를 들어 뵈처(Böttcher)는 32a절의 מַעוֹן(마온)의 일부 자음과 모음을 바꾸어 ‘방어의 바위’ 즉 צוֹר מַעוֹז(쭈르 마오즈)로 수정한다. 그리고 그 구절을 심판의 문맥에 맞추기 위해 צוֹר מַעוֹז וְהִבַּטְתָּ צָר מַעוֹז(베히바트타 쭈르 마오즈)를 “그리고 너는 방어의 바위를 찾을 것이나 [없을 것이다](and thou shalt look [in vain] for a rock of defence)”로 번역한다.⁷⁾ 하지만 드라이버(Driver)가 지적하는 바처럼, נֶבֶט의 히필은 없는 물건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체를 ‘바라본다’는 의미이다.⁸⁾ 따라서 뵈처의 제안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시바스(Seebass)는 29절과 32절의 מַעוֹן(마온)의 모음을 고쳐 מַעוֹב(메아본) ‘죄 때문에’ (um der Schuld willen)로 만든 후, 자신의 제안이 심판 예언의 문맥에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9a절의 “내 제물과 예물”이 성전에 드러지는 모든 종류의 제물에 대한 환유적 표현임을 고려하면 시바스의 제안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엘리 제사장들이 함부로 다른 제물은 사람이 עוֹב(아본/죄)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אָשָׁם, 레위기 5장 참조)에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2절에 대한 시바스의 제안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מַעוֹב(메아본/죄 때문에)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에 이어지는 맛소라 본문 בְּכֹל אֲשֶׁר-יִיטִיב אֶת-יִשְׂרָאֵל(베콜 아쉐르 예타브 옛-이스라엘)을 대폭 수정해 “너희들이 내 성소에 저지른 모든(죄 때문에)”를 의미하는 אֵל קָדְשִׁי(콜 아쉐르 하타템 엘 코드쉬)로 본문을 바꾸어 버린다.⁹⁾ 그러나 이런 본문 수정은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한다.

6)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Oxford: Clarendon press, 1960), 39.

7) 윗글.

8) 윗글.

9) H. Seebass, “Zum Text von 1 Sam. XIV 23b-25a und II 29, 31-33,” *Vetus Testamentum* 16 (1966): 76-77. 시바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보려면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Hans-Joachim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utersloh: Mohn, 1973), 116.

맛소라 본문을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문 수정(emendation)을 제안하는 학자들의 입장들 중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은 מְעוֹן(마온)을 מְעוֹיִן(메오엔)으로 바꾸자는 것이다.¹⁰⁾ 클로스터만(Klostermann)이 처음 제안한 이것은 עֵין의 포엘 분사형으로 분석되며, ‘질투의 눈으로 보다’의 의미로 이해된다. 이 본문 수정을 받아들이면 32a절에 מְעוֹיִן לְהַבִּיט(레하비트 메오엔) ‘질투의 눈으로 응시하다’라는 속어가 형성된다. 비록 עֵין이 사무엘 상 18장 9절(עוֹן אַתְּ-דָּוִד)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에서 동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32절에 형성되는 속어 מְעוֹיִן לְהַבִּיט(레하비트 메오엔)이 시갈(Segal)의 표현을 빌리면 매우 ‘비-히브리어적’(un-hebraic)이라는 사실이다.¹¹⁾ 뿐만 아니라 מְעוֹיִן(메오엔)을 받아들이면 29절 전반부의 동사 תִּבְעֵטוּ(티브아투/“[왜] 너는 짓밟는가”)를 תִּבְטֵטוּ(타비투/“[왜] 너는 응시하는가”)로 바꾸어야 한다.¹²⁾ 그러나 이 같은 동사의 교체는 29절의 전반부 주제(‘경멸함’)와 후반부 주제(‘존경함’) 사이에 존재하는 평행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보다 자세한 것은 이후의 논의를 참고할 것). 이 때문에 32a절의 מְעוֹן(마온)을 מְעוֹיִן(메오엔)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만, 29a절의 תִּבְעֵטוּ(티브아투)를 수정하기 원치 않는 일부 학자들은 29a절에 사용된 מְעוֹן(마온)을 ‘쓸데없는 첨가물’

10) Henry P.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929), 24; Karl A. Leimbach, *Die Bücher Samuel* (Bonn: P. Hanstein, 1936), 29–30; Dhorme, *Les Livres de Samuel*, 40–41. See also BDB and HALOT, s.v. מְעוֹן

11) M. H. Segal, “Studies in the Books of Samuel. III,” *The Jewish Quarterly Review* 10 (1920): 208. 드라이버도 מְעוֹיִן을 “매우 의심스러운 수정 본문”으로 평가한다.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38. See also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116. 벤 예후다도 비슷한 논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עוֹן אַתְּ דָּוִד에 근거하는 수정 본문 מְעוֹיִן לְהַבִּיט과 수정 본문 עֵין לְהַבִּיט은 본문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히브리어도 아니다(… כלל).” Eliezer Ben Yehuda, *A Complete Dictionary of Ancient and Modern Hebrew* (New York: Thomas Yoseloff, 1960), 3155.

12) Budde를 따라 Dhorme은 תִּבְעֵטוּ를 “as-tu regarde”로 수정하고 אשר צוּיֵה는 우연히 첨가된 것으로 무시한다. Dhorme, *Les Livres de Samuel*, 40.

(excrecence)로 간주하고 해석하지 않는다.¹³⁾ מַעוֹן(마온)을 מְעוֹן(메오엔)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이와 같이 여러 문제들을 노정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용되었다. 심지어 BDB나 HALOT과 같은 표준적 성서 히브리어 사전들도 מְעוֹן(메오엔)을 מַעוֹן(마온)에 대한 수정 본문으로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 מְעוֹן(메오엔) 못지 않게 학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는 제안은 29절과 32절에서 ‘이기적으로, 질투심으로, 험견으로’를 의미하는 랍비 히브리어 속어 עֵין צָר(짜르 아인)이나 צָרָה עֵין(아인 짜라)를 읽어내는 것이다.¹⁴⁾ 이 견해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크로스(Cross)와 맥카터(McCarter)이다. 크로스는 맥카터와 나눈 사적 소통(personal communication)에서 29절의 מְעוֹן צוֹיְתִי ... תְּבַעְטוּ(티브아투...아슈르 짜비티 마온)과 32절의 מְעוֹן צָר הַבַּטָּח(히바트타 짜르 마온)이 동일한 원문 עֵין צָרַת לְהַבִּיט(래하비트 짜랏 아인/“—을 질투의 눈으로 보다”)의 훼손된 두 형태(corrupt variants)라고 주장했다.¹⁵⁾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크로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32a절의 מְעוֹן צָר והבטת와 29a절의 מְעוֹן צוֹיְתִי ... תְּבַעְטוּ는 훼손된 본문들이다. LXX^b의 히브리어 대본이

עֵין צָר ... תְּבַיט이며, 4QSam^a가 증거하는 본문은 [... תְּבַיט]이므로 29a절의 צוֹיְתִי는 (모음문자를 무시한다면) trc가 훼손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전 3세기 사본들에서 바브와 레쉬는 잘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32a절(MT)에서 מְעוֹן צָר도 עֵין צָרַת이 훼손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전 4세기 사본들에서는 뎀과 타브가 쉽게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스모니안 시대와

13)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14, footnote 29. ESV와 NLT의 번역도 참고하라.

14) Marcus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chic Literature* (London: Putnam's sons, 1903), s.v. rc;.

15) André Caquot and Philippe de Robert, *Les livres de Samuel*, Commentaire de l'Ancien Testament (Genève: Labor et Fides, 1994), 55.

헤로디안 시대에는 바브와 요드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עין צרת에 관해서는 창세기 42장 21절의 נפשו צרת와 랍비 히브리어 속어인 צרה עין 등을 참조하고, LXX의 ἀναιδεῖ ὀφθαλμῶ도 참조하라.¹⁶⁾

비록 크로스는 칠십인역 ἀναιδεῖ ὀφθαλμῶ의 원본 히브리어 עין צרת(짜랏 아인)이 원문이고, 29a절의 קְוֵיתִי קָעוֹן(찌비티 마온)과 32a절의 קָעוֹן צר(짜르 마온)이 훼손 본문들(corrupt variants)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논거들을 제공하려 하지만, 그의 논증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크로스가 원문으로 제안한 עין צרת(짜랏 아인)이 성경 히브리어에도, 성경 이후의 히브리어(post-Biblical Hebrew)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크로스도 그 표현이 자신의 추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그는 성경 히브리어 표현 נפשו צרת(짜랏 나프쇼)와 랍비 히브리어 표현 עין צרה(아인 짜라)를 조합하여 עין צרת(짜랏 아인)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도 성경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크로스의 주장은 많은 것을 선제적으로 가정해야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주전 3세기 파피루스 문헌에서 바브(waw)와 레쉬(resh)가 혼동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혼동이 29절의 קְוֵיתִי(찌비티)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없다. 더구나 קְוֵיתִי(찌비티)의 바브가 레쉬로 바뀌어 צרת가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또 하나의 증명되지 않는 가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단어의 주전 3세기 형태에는 모음문자 요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킴론(Qimron)에 따르면 주전 3세기 히브리어에서는 모음문자가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다.¹⁷⁾ 따라서 קְוֵיתִי(찌비티)가 원문 צרת의 훼손된

16) McCarter, *I Samuel: A New Translation*, 87.

17)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Roma: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7. Qimron에 의하면, 모음 문자 '요드'는 사해 문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Elisha Qimr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Harvard Semitic Studie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6), 17-19.

형태라는 크로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צִיְיָ(찌비티)의 바브가 레쉬로 혼동되었고, 그 단어의 주전 3세기 형태에는 모음문자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앞에 오는 אֲשֶׁר(아셰르)는 사본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우연발생적 첨가물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자의적일 뿐이다. 32절의 מִעוֹן בָּרַח(짜르 마온)에 대한 크로스의 설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4세기 문서에서 멤(mem)과 타브(taw)가 혼동되기 쉬었다는 사실은 그런 혼동이 32a절의 מִעוֹן בָּרַח(짜르 마온)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¹⁸⁾ 더 큰 문제는 오리겐 개정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칠십인역 성경인 LXX^B에는 32절의 전반부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표 1일 참조).¹⁹⁾ 만약 LXX^B가 원문에 가깝고 맛소라 본문이 훼손된 본문이라면, 맛소라 본문인 32a절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 본문(2:27-36)에 구조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²⁰⁾ 그러나 LXX^B에서 생략된 32절의 전반부는 심판 본문의 문학적 이해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3. 엘리, 성전의 적!’을 참조할 것).

지금까지 논의에서 분명해 진 것은 맛소라 본문에 대한 모든 수정 제안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²¹⁾ 수정 제안들은 맛소라 본문의

18) 크로스가 제안한 수정 본문은 칠십인역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사본학적 판단과 관련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특정 본문에 대한 히브리어 증거들이 없을 때, 번역본들에 근거해 히브리어 본문상의 철자 문제에 관한 얼마나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번역본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철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런 증거는 본문 비평적 판단에 있어 결정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본문 비평적 판단과 관련한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19) 맛소라 본문에 근거한 개정역인 LXX^A와 LXX^C는 논의 중인 구절에서 맛소라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Shimo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7), 93. 다음의 책들도 참고하라. Alan Brooke and Norma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06), 9; Karen H. Jobes and Moisé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 Carlisle, 2000), 59.

20) 클라인(Ralph W. Klein, *1 Samuel*, 22)은 WBC 사무엘상 주석에서 32절 전반부를 번역하지 않는다.

21) Cf.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39.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한 부분만큼이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냈음을 살폈다. 대부분의 수정 제안들은 칠십인역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는 사무엘상의 본문 비평에서 칠십인역이 가지는 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칠십인역의 사본학적 가치는 사무엘서 본문 안에서도 사례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칠십인역이 4QSam^a와 일치하는 경우도 맞소라 본문에 대한 그것의 우위가 자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사본학적인 결정은 특정 본문에 대한 증거 사본의 수에만 근거해 내려져서는 안 되며 보다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 맞소라 본문에 보존된 원문을 잘 이해하여 못해, 자신들에게 익숙한 어법(להבטח צרת עין)을 통해 그 본문을 이해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מָעוֹן(마온)이 보다 큰 문맥에서 가지는 문학적 기능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후의 논의에서 필자는 29절 전반부의 맞소라 본문 מָעוֹן(마온)과 32절 전반부의 מָעוֹן צָר(짜르 마온)이 그 자체로 충분히 변호 가능할 뿐 아니라, 보다 큰 문맥에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해석학적 열쇠가 됨을 논증할 것이다.²²⁾

표 1: 29a절과 32a의 맞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본문의 비교²³⁾

22) 엘리에 대한 심판 본문이 신명기적 역사의 전체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서사적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Caquot and de Robert, *Les livres de Samuel*, 54; Cartledge, *1 & 2 Samuel*, 61–62.

23) 이 표는 후플리의 것을 수정 편집한 것이다. Hutzli, *Die Erzählung von Hanna und Samuel: Textkritische und Literarische Analyse von 1. Samuel 1–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Kontextes*, 121, 124.

24) 루키안 개정역이 32절의 전반부를 보존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그러나 κραταιωματα α ω ν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루키안 개정역이 32절 전반부를 생략한 LXX^b보다 사무엘상의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9.

לָמָּה תִּבְעֵטוּ ... אֲשֶׁר צִוִּיתִי מֵעוֹן	LXX ^B : καὶ ἵνα τί ἐπέβλεψας ... ἀναιδεῖ ὀφθαλμῶ LXX ^L : καὶ ἵνα τί ἐπέβλεψας ... ἀναιδεῖ ὀφθαλμῶ LXX ^A : καὶ ἵνα τί ἐπέβλεψατε ... ἀναιδεῖ ὀφθαλμῶ
וְהִבְטַתְּ צֶרֶךְ מֵעוֹן בְּכֹל אֲשֶׁר-וִישׁוּב אֶת-יִשְׂרָאֵל	LXX ^B : N/A LXX ^L : καὶ ἐπιβλεψεῖ κραταιῶμα μαων ἐν πασιν οἰς ἀγαθυνεῖ τον Ἰσραηλ ²⁴ LXX ^A : καὶ ἐπιβλεψη κραταιῶμα μαων ἐν πασιν οἰς ἀγαθυνεῖ τον Ἰσραηλ

3. 엘리, 성전의 적!

1) מעון(마온)의 의미

맛소라 본문을 채택한 현대 번역 성경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מעון(마온)을 ‘성전’, ‘성소’, 혹은 ‘처소’로 번역한다(ASV, JPS[1917], KJV, NASB, NET, NIV, *Nouvelle Edition Geneve, French Traduction Oecuménique de la Bibel, Luther Bibel, Zürcher Bibel*, 개역한글, 개역개정). 그러나 재미있게도 맛소라 본문을 선호하는 주석가들은 거의 없다. 이는 맛소라 본문을 칠십인역에 맞추어 수정하면, 주석가들이 맛소라 본문이 발생시키는 해석적 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경향의 예외가 쓰무라(Tsumura)인데, 그는 맛소라 본문을 수용할 뿐 아니라 그것이 제기하는 해석적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공한다. 쓰무라(D. Tsumura)는 32절 전반부의 מעון צר(짜르 마온)을 “내 처소의 쇠퇴(a decline of my dwelling)”로 번역하고, 그것을 이어지는 구절 “내 백성의 행복(the welfare of my people)”과 대조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쓰무라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서 백성이 번성할 때 신전도 번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32a절의 저주가 지시하는 상황은 백성이 번성함에도 불구하고 신전은 오히려 쇠퇴해

가는 특이 상황이다. 그런 신전의 쇠퇴가 그곳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에게 저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²⁵⁾ 그러나 쯔무라의 설명은 문제의 구절을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라는 좁은 문맥에서만 바라보고, 더 넓은 문맥에서 그 구절이 담당하는 문학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들이 번성하였지만, 성전이 쇠퇴한 시기가 없었다는 점은 쯔무라의 제안을 더욱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든다.²⁶⁾ 필자는 쯔무라와 같이 29절과 32절의 맛소라 본문 מַעוֹן (마온)을 ‘성전’ 혹은 ‘성소’로 이해하지만, 32절의 מַעוֹן צָר (짜르 마온)은 ‘성전의 적’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29절과 32절에 대한 필자의 사역이다.

29절

וְתִכְבֵּד אֶת־בְּנוֹךְ, מִמּוֹנֵי לְהַבְרִיאֲכֶם מִרֵאשִׁית כָּל־מִנְחַת יִשְׂרָאֵל לְעַמִּי
 לָמָּה תִבְעֲטוּ בְזֻבְחֵי, וּבְמִנְחֹתַי אֲשֶׁר צִוִּיתִי מַעוֹן
 왜 너희들은 내가 성전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들을 밟으며, / 네 아들들
 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
 지게 하느냐

32절

צָר מַעוֹן בְּכֹל אֲשֶׁר־יוֹטֵב אֶת־יִשְׂרָאֵל וְלֹא־יִהְיֶה זָקֵן בְּבֵיתָךְ כָּל־הַיָּמִים
 וְהַבְּטָחָה
 그 때, 오 성전의 적이며, 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바라만볼 것
 이다. / 그리고 너의 집에는 영원히 장수하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25) 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2007), 169.

26) 일부 학자들은 ‘성전의 환란’이 예레미야 7장 12절에 언급된 실로 성소의 멸망이라고 주장하지만, 엘리는 그 사건을 목격하기 전에 사망한다.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117;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33, footnote g.

29절과 32절의 맛소라 본문 מָעוֹן(마온)은 ‘성소’, ‘성전’, ‘처소’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것의 문자적 의미는 ‘거처, 서식지’이지만, 종종 땅이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은유어로 사용된다.²⁷⁾ מָעוֹן(마온)의 사전적 의미는 이처럼 비교적 명확하나, 29a절과 32a절에서 그 단어가 담당하는 구문적 기능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로 인식된다. 29a절에서 מָעוֹן(마온)이 바로 앞의 동사 צִוִּיתִי(찌비티/내가 명령했다)와 어떤 구문적 관계에 있는가? 또한 32절에서 צִוִּיתִי(찌비티)가 바로 앞의 명사 צָר(짜르/적, 곤난)와 어떤 구문적 관계에 있는가?

2) 29절의 מָעוֹן(마온)을 부사로 읽기

29절에 사용된 מָעוֹן(마온)이 전치사를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 번역본들이 그것을 부사처럼 번역한다(‘성전에서’). 그러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시(poem) 혹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특수 문체(elevated style)에서는 전치사 없이 부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מָעוֹן(마온)에 b 혹은 ו와 같은 전치사가 없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²⁸⁾ 진짜 문제는 ‘부사로 기능하는 מָעוֹן(마온)이 어떤 동사를 수식하는가?’이다. 이 질문에 다음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צִוִּיתִי(찌비티)와 מָעוֹן(마온) 사이에 ‘가져오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מָעוֹן(마온)이 그 생략된 동사를 수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מָעוֹן צִוִּיתִי אֲשֶׁר(아쉐르 찌비티 마온)은 “내가 성전에 가져오라고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들)”로 해석될 수 있다. 탈군 요나단은 29절 전반부를 바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רַפְּקִידִית לְקַרְבָּא קַדְמוֹ בְּבֵית מִקְדָּשִׁי “내가 내 거룩한 집, 내 앞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들).²⁹⁾ 둘째, מָעוֹן(마온)을 바로

27) cf. BDB, HALOT, Even Shoshan Dictionary, s.v. מָעוֹן

28) Gesenius-Kautzsch-Cowley, § 118d; Joüon-Muraoka, 126h.

29) 라이덴 대학에서 편집한 시리아 본문은 29절의 מָעוֹן(마온)을 *mn mdr*’ “광야로부터”로 번역한다. 즉 시리아 번역은 מָעוֹן(마온)이 장소와 관계된 어휘임을 입증해 준다. 시리아 본문에는 탈군 요나단 본문과는 달리 인칭 대명사 “나의”가 없음에도 주목하라. 맛소라 본문에도 인칭

앞의 צְוִייתִי(찌비티)와 연결시키지 않고, 29절의 첫 번째 동사 תִּבְעֶטוּ(티브아투/“네가 짓밟느냐?”)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29절의 전반부는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들을 왜 내 성전에서 짓밟는가”로 번역될 수 있다. 이런 이해에 따르면, 성전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물들을 경멸한 현장이 되는 것이다. 즉 엘리의 죄는 성전에서 저질러진 것이다. מָעוֹן(마온/성전에서)이 수식하는 동사를 무엇으로 파악하든지 그 맛소라 본문은 엘리의 악행과 성전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다.

나아가 29절의 מָעוֹן(마온)을 부사로 이해하면, 칠십인역이나 4QSam^a처럼 동사 תִּבְעֶטוּ(티브아투/짓밟다)를 תִּבְיִטוּ(타비투/바라보다)로 고칠 필요가 없다.³⁰⁾ תִּבְעֶטוּ의 어근 בעט가 구약 성경에서 단 2회만 사용되지만, 그것의 기본적 의미(‘발로 차다, 짓밟다’)는 신명기 32장 15절의 용례-예를 들어, בעט는 ‘버리다’를 의미하는 נָחַשׁ와 ‘경멸하다’를 의미하는 נָבַל과 평행법을 형성함-와, 성경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post-Biblical Hebrew) 문헌의 용례들을 통해 분명해진다.³¹⁾ תִּבְעֶטוּ의 어근 בעט를 경멸의 행위로 이해하면, 우리는 29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cf. וַחֲבָב) 모티브와 ‘경멸하는’(תִּבְעֶטוּ) 모티브 사이의 대조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가 30절에서 엘리 아들들에 대한 심판을 ‘무게’의 관점에

대명사가 없다.

30) 이 동사에 대한 시리아 본문과 타르굼 요나단 본문은 모두 맛소라 본문 תִּבְעֶטוּ를 반영하고 있다. אֲפִלְפִּימָן “(왜 너는) 악하게 행하느냐” אֲחִיּוֹן אֲנִי “(왜 너는) 강탈하느냐”

31) 포켈만은 בעט가 신명기 32장 15절(שָׁמַן ‘기름지다’, עָבָה ‘두껍다’, כָּשָׂה ‘게걸스럽게 먹다’)과 사무엘상 2장 29절(כָּרַח ‘살피다’)에서 ‘먹다’, ‘살피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것의 의미를 ‘게걸스럽게 먹다’로 파악한다. Fokkelman, *Vow and Desire (I Sam. 1-12)*, vol. 4 of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3), 569-70.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인 번역인 ‘짓밟다, 걸어차다’의 의미를 선호한다. 재스트로에 따르면 이 의미는 포로기 이후의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chic Literature*, s.v. בעט

서 요약한다는 사실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나를 무겁게[중] 하는 자(מְכַבֵּד)를 내가 무겁게[중] 할 것(אֶכְבֵּד)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בֹּזֵה)은 가벼워지리라(יִקַּל).” 엘리 가문 제사장들의 죄(도적질과 간음)가 일견 도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אִישׁ אֱלֹהִים) 삼상 2:27이 엘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바로 이점에서 엘리 아들들의 도덕적 죄를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맛소라 본문 מָעוֹן ‘성전에서’가 매우 중요해진다. 칠십인역에 근거한 수정본문인 “질투하는 눈”(מְעוֹיִן 메오엔, 혹은 עֵינַי צָרַח 짜라트 아인)은 엘리 가문의 죄가 가진 영적 차원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사무엘상 2장은 엘리 아들들의 죄를 두 가지 언급한다. 하나는 성전에 바쳐진 제물들과 예물들을 도적질하는 것(12-17절)이고 다른 하나는 회막 문에서 일하는 여인들(נְבָאוֹת)과 동침하는 것(22절)이다. 히브리어 구절 מוֹעֵד אֱהָל פֶּתַח (페타흐 오헬 모에드)는 성전의 본당을 지칭할 수 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은 “회막 문”과 “여호와 앞”(לְפָנֵי יְהוָה)을 동격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회막 문’이라는 표현이 여호와와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의 성소 공간을 지칭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²⁾ 지성소 즉 회막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회막 문” 즉 지성소 앞 공간에는 일반인들이 기도 등의 목적을 위해 들어갈 수 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מוֹעֵד אֱהָל פֶּתַח (페타흐 오헬 모에드)가 전치사 없이 부사구로 사용된 점을

32)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65; Koowon Kim, *Incubation as a Type-Scene in the Aqhatu, Kirta, and Hannah Stories: A Form-Critical and Narratological Study of KTU 1,14 I-1,15 III, 1,17 I-II, and 1 Samuel 1:1-2:11*, VTS 145 (Leiden: Brill, 2011), 299.

고려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그 여자들을 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³⁾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전을 기도의 통로로 사용한 평신도 한나와 성전을 자기 욕구의 분출구로 사용한 제사장 사이의 대조가 더욱 선명해진다. 나아가 엘리 아들들이 범한 여인들을 지칭한 히브리어 צְבָאוֹת(즈브앗)은 여호와의 이름을 연상시킨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즉 יְהוָה צְבָאוֹת(아도나이 즈브앗)으로 불렀는데, “만군의”라는 말과 “일하는 여인들”이라는 말은 자음 철자(צבאות)에 있어 동일하다. 이것은 엘리 아들들의 죄가 단순히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저질러진 것임을 보여준다.³⁴⁾ 이 때문에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한 익명의 선지자는 엘리의 죄를 29절에서 성전(מִזְבֵּיחַ 마온)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엘리의 죄와 성전 사이의 관계는 32절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3) 32절의 מִזְבֵּיחַ(짜르 마온)을 호격으로 읽기

32절의 맛소라 본문 מִזְבֵּיחַ צָר(짜르 마온)을 필자는 “오 성전의 적이여”라고 번역한다. 이 호격 구절은 선행하는 동사 הִבַּטְתָּ(히바트타/ ‘너는 바라볼 것이다’)의 2인칭 주어를 구체적으로 표지한다. 한편 이 동사의 목적어는 מִזְבֵּיחַ צָר(짜르 마온)에 후속하는 אֱשֶׁר-יִיטֵב אֶת-יִשְׂרָאֵל(베콜 아쉐르-예티브 엣-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이다. 32절 전 반부(וְהִבַּטְתָּ צָר מִזְבֵּיחַ בְּכֹל אֲשֶׁר-יִיטֵב אֶת-יִשְׂרָאֵ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 때, 오 성전의 적이여, 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바라만 볼 것이다.” מִזְבֵּיחַ צָר(짜르 마온)을 “성전의 적” 혹은 “성전 안의 적”으로 번역한 것은 필자가 처음은 아니지만(cf. “an enemy in my habitation” in K.J.V, “deinen Widersacher in der Wohnung” in Luther Bibel, “un adversaire

33) J. P. Fokkelman, *Vow and Desire (1 Sam. 1–12)*, vol. 4 of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3), 127–128.

34) 윗글, 128; K. Bodner, *1 Samuel: A Narrativ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33.

dans ma demeure” in Nouvelle Edition Geneve), 그것을 동사 הבטת의 2인칭 주어를 구체화한 호격으로 제안한 학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호격 구문이 2인칭 동사와 그것의 목적어 혹은 부사구 사이에 삽입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וְשָׁמַעְתָּ יִשְׂרָאֵל וְשָׁמַרְתָּ לַעֲשׂוֹת אֲשֶׁר יִיטָב לְךָ

“You shall listen, O Israel,...to do them,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신 6:3)

1-2) וּבֹאֲתָ אִתָּהּ וְזִקְנֵי יִשְׂרָאֵל אֶל־מֶלֶךְ מִצְרַיִם

“You shall go, O you and the elders of Israel, to the king of Egypt.” (출 3:18)

2) פְּדֵה, אֱלֹהִים אֶת־יִשְׂרָאֵל

“Redeem, O God, Israel.” (시 25:22).

2-1) הֶאֱזִינָה, אֱלֹהִים תְּפִלָּתִי

“Give ear, O God, to my prayer.” (시 55:2).

2-2) בְּרַכּוּ עַמִּים אֱלֹהֵינוּ

“Bless, O peoples, our God.” (시 66:8).

3) שִׂמְחָ בְּחֹרֶר בְּיַלְדוּתְיָךְ

“rejoice, O young man, in your youth.” (전 11:9).

3-1) לָכוּ מִלְּאֲכָסִים קְלִיִּם אֶל־גּוֹי

“Go, O swift messengers, to a nation.” (사 18:2).³⁵⁾

이상의 예로부터 판단하면, 32절에서 צר מעון(짜르 마온)을 동사 הבטת와 그것의 의미상 목적어인 אֶת־יִשְׂרָאֵל 사이에 삽입된 호격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구문론적으로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צר מעון(짜르 마온)을 호격으로 파악한 학자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צר מעון

35) 첫 번째 예문들에서는 호격 구문이 2인칭 바브 연속 완료형 동사와 그것의 부사절 사이에 삽입되었으며, 두 번째 예문들에서는 호격 구문이 2인칭 명령법 동사와 그것의 목적어 사이에 삽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문은 호격 구문을 2인칭 명령법 동사와 그것의 부사구 사이에 삽입시킨 경우들이다.

(짜르 마온)을 호격으로 간주했을 때 발생하는 해석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돔(Dhorme)과 같은 학자는 צַרְמָוֹן(짜르 마온)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증인”을 의미하는 מְעוֹן עַד(에드 마온)으로 수정한 후에야, 그 구절을 호격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그 때, 오 질투의 증인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에게 행해진 모든 축복을 바라볼 것이다(*Tu contempleras alors, témoin envieux, tout le bien que je fera a legard d'Israël.*”³⁶⁾ 그러나 필자의 제안처럼 맞소리 본문 צַרְמָוֹן(짜르 마온)을 “성전의 적”으로 해석할 때 32절의 문학적 역할이 엘리에 대한 심판의 문맥에서뿐 아니라, 보다 큰 이야기 문맥에서도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צַרְמָוֹן(짜르 마온)의 문학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32a절의 문맥적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절 전반부(“당신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을 바라만 볼 것이다”)는 시편 23편 5절을 연상시킨다. “당신은 내 원수의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시편 구절은 축복 받은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는 반면, 32절의 심판 예언은 저주 받은 엘리의 관점을 반영한다. 즉 저주 받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만 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저주가 열왕기하 7:2에도 기록되어 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예언을 믿지 않는 한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저주한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앞(2. 질투의 눈으로 보기)에서 언급한 수정 본문들(צַרְמָוֹן, עַד, מְעוֹן)에 담긴 ‘질투’의 개념은 32a절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

32a절의 저주는 엘리 가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는 제사장적 특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36) Dhorme, *Les Livres de Samuel*, 41.

있다. 이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 본문을 아브라함 언약 본문(창 12:1-3)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언약적 축복을 뒤집는 것이다. 첫째,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라는 저주(삼상 2:31)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창 12:2a)을 뒤집는 것이다. 둘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새로 임명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먹고 살기 위해 성직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저주(삼상 2:36)와 대조된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창 12:3)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는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만 볼 것이라는 저주(삼상 2:32)와 대조된다.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저주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엘리 가문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그 축복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³⁷⁾ 사무엘상 2장 30절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적 축복과 비교, 대조하면서 읽는 것을 정당화시켜준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개역개정역). 이 구절은 엘리에 대한 심판 본문의 ‘혐의 제기’ 부분과 ‘심판 선고’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 구절(hinge verse, 들어가는 말의 구조 분석을 참조)로, 그 어법이 아브라함의 언약-“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37) 36절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경험하게 될 엄한 현실을 생생히 묘사한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가문의 제사장들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들은 “빵 조각”을 위해 성직을 구걸할 것이다. 그들의 성직 수행에 대한 동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지 않다. “빵 조각”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수치에 대한 생생한 은유가 된다. 이것은 스스로 타락하여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빼앗긴 제사장들의 궁극적 모습이다.

(창 12:3)–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엘리에 대한 심판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뒤집는 구조를 가진다면, 32절의 전반부를 생략한 LXX^B의 사본학적 가치는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현재의 맛소라 본문이 엘리에 대한 저주와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대조 구조를 매우 잘 보여준다.³⁸⁾

4. 보다 큰 이야기 문맥에서 זָרַח קָמָר(짜르 마온/성전의 적)의 문학적 역할

사무엘상 1-4장은 한나와 사무엘을 엘리 가문과 대조한다. 사무엘서 저자는 한나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각각 “블리아알의 딸”(בְּלִיאֵל חַתּוּל 삼상 1:16)과 “블리아알의 아들들”(בְּנֵי בְלִיאֵל 삼상 2:12)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나 가문과 엘리 가문을 비교, 대조하도록 독자들을 초청한다. 이 두 가문을 비교, 대조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무자한 한나의 고통의 고리를 끊는 사건이 성전을 배경으로 벌어진다. 한나는 브닌나의 핍박, 남편의 몰이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절망적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 성전을 향한다. 그곳에서 서원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낸다. 반면, 저주를 부른 엘리 아들들의 악행은 한나가 기도한 바로 그 성전에서 자행된다. 그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것으로 취한다. 또한 사무엘이 계시를 받게 될 바로 그 성전(삼상 3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일

38) LXX^A과 LXX^C이 32절 전반부를 보존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비록 *κραιωσιμα μαων(μουων)*의 의미는 불분명하지만, 그것이 맛소라 본문 זָרַח קָמָר(짜르 마온)에 대한 직역으로 의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타르굼 요나단과 시리아 본문도 32절의 전반부를 보존하고 있다: *יִשְׂרָאֵל חַי בַּעֲקָת דְּחַיִּי עַל אַנְשׁ בִּיתְךָ בְּחֻבִּין דְּחֻבִּין קְרַמִּי בְּבֵית מַקְדְּשֵׁי וְחַר כִּין אִיִּי שְׂבָחָא עַל וְחַי מִחַתְכָּל וְחַי* “그때 너는 네가 내 성소에서 저지른 죄때문에 너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을 보고 깨달을 것이다. 재난 후에 나는 이스라엘에 선을 가져올 것이다” *wǝhd tqd' b̄m'mrk kl d̄mg'b̄ b̄ysryl* “너의 집에서 지배자의 지팡을 잡는 누구나...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는 여인들(נִיסִּים)과 동침한다. 이처럼 사무엘 가문과 엘리 가문의 대조적 행보는 성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³⁹⁾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을 받았지만, 오히려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자신들을 성전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재미있는 것은 ‘성전에서 섬기다’를 의미하는 동사 מְשָׁרֵת(메사레트)가 사무엘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사용되지만(2:11, 18, 3:1),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צַר מִטֵּוֹן(짜르 마온/성전의 적)에 가까움을 암시한다.⁴⁰⁾

엘리의 별명인 ‘성전의 적’에서 ‘적’(צַר)은 한나의 ‘적수’(צָרָה 삼상 1:6)이었던 브닌나를 연상시킨다.⁴¹⁾ 엘리와 브닌나는 모두 사무엘에 의해 자신들의 특권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신명기 21장 15-17절에 기록된 법에 따르면 브닌나의 장남이 엘가나 가문의 장자권을 가진다. 그러나 엘리가 한나에게 장자권(primogeniture)을 상징하는 갑절의 묵(מִכָּתִים 삼상 1:5)을⁴²⁾ 준 사실은 한나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브닌나의 장남이 가져야하는 권리를 가로챌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준다. 마찬가지로, 실로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권리는 엘리의 두 아들에게 있었으나 사무

39) 삼상 1-4장에서 저자는 ‘성전’을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한다. 1:24에서 בית(베틀)이 쓰였고, 1:9에서는 הֵיכָל(헤칼), 2:22에서는 מוֹעֵד אֹהֶל(오헬 모에드)가 사용되었다. 2:29, 32에서 מִטֵּוֹן(마온)이 사용된 것도 ‘성전’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 저자의 경향과 잘 일치한다.

40) 포겔만에 따르면, 저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할당된 동사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이야기에 처음 도입하는 1:3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그들에게 어떤 동사도 할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같은 절에서 ‘경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실로에 ‘올라가는’ 엘가나와 큰 대조를 이룬다. 예배하는 평신도인 엘가나와 달리 엘리와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 메시지를 주려는 듯, 저자는 그들에게 아무 동사도 할애하지 않는다. 이후에 그들에게 할당된 동사도 (여호와를) ‘경멸하다’와 같이 매우 부정적이다(cf. 2:17). Fokkelman, *Vow and Desire (1 Sam. 1-12)*, 34.

41) 중세 유대인 주석가 데이빗 김히는 32절의 ‘성전의 적’이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 즉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독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제안한다. 하나님은 32절에서 엘리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셈이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사독은 성전 안에 있는 적인 셈이다.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93.

42) 이 구절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하라. Alter, *The David Story*, 4; Bar-Efrat,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65-66; Cartledge, *1&2 Samuel*, 30; McCarter, *1 Samuel*, 51-52.

엘이 그들 대신 엘리의 실질적 후계자가 된다(삼상 3장 참조).⁴³⁾ 브닌나와 엘리 사이의 문학적 연결은 한나의 노래에서도 암시된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מְרִיבָב (MRIBAB)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한나의 적수인 브닌나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성전의 ‘적’인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도 생각나게 한다. 마지막으로,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맛소라 본문 צַרְ מַעֲוֹן (ZAR MA'AVON) 짜르 마온/성전의 적)을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에 대한 별칭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설 시점과 대제사장 가문의 교체 시점이 대략 일치한다는 점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은 여호와가 실로 성소에서 자행된 악행 때문에 그 성소를 파괴했다고 증언한다. 실로 성소의 멸망이 엘리 가문 제사장들의 악행 때문이라면, 새 성전은 새로운 가문 출신의 제사장들의 출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본문에 새로운 가문 출신의 ‘충실한 제사장’ (כֹּהֵן נֶאֱמָן) 코헨 네에만)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었고, 그 예언이 솔로몬 때의 사독 제사장 때에 성취된 이유일 것이다.

5. 나가는 말

29절 전반부와 32절 전반부에 대한 칠십인역 본문이 맛소라 본문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맛소라 본문을 칠십인역 본문의 히브리어 대본(Vorlage)이 훼손된 것으로 볼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29절의 맛소라 본문 מַעֲוֹן (마온)과 32절의 צַרְ מַעֲוֹן (짜르 마온)을 각각 “성전에서” 그리고 “오 성전의 적이여”라고 해석하고, 이런 해석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본문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이야기 속에서 감당하는 문학적 역할을 탐구하였다. 즉 엘리 가문에 심판을 가져온 죄는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에 대해 저질러진 것들이고, 그 죄들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

43)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엘리는 사무엘을 “나의 아들”(בְּנִי)이라고 부른다.

을 성전을 섬기는 자가 아닌 성전의 적으로 만들었다.

6. 참고문헌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1999).
- Bar-Efrat, Shimo, *Das Erste Buch Samuel: Ein Narratologisch-Philologischer Kommentar*. Beiträge Zur Wissenschaft Vom Alten und Neuen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7).
- Ben Yehuda, Eliezer, *A Complete Dictionary of Ancient and Modern Hebrew* (New York: Thomas Yoseloff, 1960).
- Birch, Bruce C., “The First and Second Books of Samuel: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The New Interpreter’s Bibl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2002).
- K. Bodner, *1 Samuel: A Narrativ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hoenix Press, 2009).
- Brettler, Marc, “The Composition of 1 Samuel 1-2”,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 (1997).
- Campbell, Antony F., *1 Samuel*. The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vol. 7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2003).
- Caquot, André, and Philippe de Robert, *Les livres de Samuel*. Commentaire de l’Ancien Testament (Genève: Labor et Fides, 1994).
- Cartledge, Tony W., *1 & 2 Samu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Ga.: Smyth & Helwys Pub., 2001).
- Dhorme, Paul, *Les Livres de Samuel* (Etudes Bibliques, Paris: Victor Lecoffre, 1910).

- Driver, S. R., *Notes on the Hebrew Text and the Topography of the Books of Samuel* (Oxford: Clarendon press, 1960).
- Brooke, Alan, and Norma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06).
- Fokkelman, J. P., *Vow and Desire (I Sam. 1-12)*. Vol.4 of *Narrative Art and Poetry in the Books of Samuel: A Full Interpretation Based on Stylistic and Structural Analyses*, Studia Semitica Neerlandica (Assen, The Netherlands: Van Gorcum, 1993).
- Hertzberg, Hans Wilhelm, *I & II Samuel, a Commentary*. [Translated by J. S. Bowden],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4).
- Hutzli, Jürg, *Die Erzählung von Hanna und Samuel: Textkritische und Literarische Analyse von 1. Samuel 1-2 Unter Berücksichtigung Des Kontextes*. Abhandlungen Zur Theologie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vol. 89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7).
- Jastrow, Marcus,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chic Literature* (London: Putnam's sons, 1903).
- Jobes, Karen H., and Moisé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Carlisle, 2000).
- Joüon, Paul,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Subsidia Biblica (Roma: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 Klein, Ralph W., *I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TX: Word Books, 1983).
- Leimbach, Karl A., *Die Bücher Samuel* (Bonn: P. Hanstein, 1936).
- McCarter, P. Kyle, *I Samuel: A New Translation*, The Anchor Bible

- (Garden City, N.Y.: Doubleday, 1980).
- Nowack, von W., *Richter, Ruth u. Bücher Samueli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02).
- Qimron, Elisha,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Harvard Semitic Studies. Atlanta (Ga.: Scholars Press, 1986).
- Seebass, H., “Zum Text von 1 Sam. XIV 23b-25a und II 29, 31-33”, *Vetus Testamentum* 16 (1966).
- Segal, M. H., “Studies in the Books of Samuel. III”, *The Jewish Quarterly Review* 10 (1920).
- Smith, Henry P.,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New York: C. Scribner's sons, 1929).
- Stoebe, Hans-Joachim, *Das Erste Buch Samuelis*.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Gutersloh: Mohn, 1973).
-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2007).

검색어

엘리

마온

성전

심판

적

Eli, Enemy of a Temple!

Koowon Kim, Ph.D.

Professor of Department of Theolog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This article will be devoted to studying the usage of **מְעוֹן** in 1 Samuel vv. 29 and 32, especially the phrase **מְעוֹן** rc in v. 32, which is often regarded as an interpretive conundrum in the oracle.

Many scholars, who find MT's readings in 1 Samuel 2:29, 32 unintelligible, have resorted to emendation, based on different readings in LXX and 4QSam^a. This paper will critically review previous suggestions and prove MT readings to be commendable in and of itself. Towards this end, the relevant texts will be analyzed both philologically and literarily.

I will propose to translate rc in v. 29 and **מְעוֹן** rc in v. 32 as “in a temple” and “Oh enemy of a temple!” respectively and attempt to show that MT's readings are intelligible, and, if properly understood, provide a

hermeneutical key to understanding of the judgment oracle against Eli in its broader context.

LXX's reading of verses 29a and 32a in 1 Samuel 2 may appear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difficult MT readings, but in fact, LXX complicates it. There is no definite evidence that LXX is the original and MT is its corrupt variant. MT צַר "in a temple" in v. 29a and קִיעוֹן rc "enemy of a temple" in v. 32 make sense as they stand, in the sense that the sins of Eli's two sons were committed either in the temple or against the temple. Moreover, such understanding of MT readings may provide a hermeneutical key to understanding the story of the Elides' degradation, in which Eli's family is deprived of the privilege serving at the temple because they turned themselves into enemies of the temple. Although God revealed himself to Eli's house in Egypt, chose him out of all the tribes to be his priest, and gave him all the privileges pertaining to a temple-servant, the Elides proved themselves to be evil and ungrateful servants by desacralizing the temple. What they did in the temple or against the temple earns them the title קִיעוֹן צַר 'enemy of a temple'.

Keywords

Eli

Maon

Temple

Judgment

Enemy

- 투고일: 2013년 1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08일